

I. 上半期 經濟 實績의 特性

1. 景氣 推移

- 94년에 들어서 국내 경기의 回復 速度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음.
- 1/4분기 經濟 成長率은 당초 전망치인 7%대를 훨씬 능가하는 8.8%였음.
- 왕성한 産業 活動을 반영하여 2/4분기 성장률도 예상보다 높은 8.1%로 추정
 - 2/4분기 生産과 出荷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0.6%와 11.1%로, 94년에 들어서 10%대의 증가세가 지속
 - 투자 선행 지표인 국내 기계 수주액과 기계 수입 허가액 증가율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3.0%와 66.8%를 기록
 - 2/4분기 제조업 平均 稼動率은 호황기 수준인 82.8%를 나타냄.

2. 特性

- 최근 국내 경기는 反騰 現狀, 特需 景氣, 內需 爲主 成長, 兩極化라는 특징적 성격을 띠고 있음.
- 경기지표의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내용의 構造的 脆弱性을 내포

(1) 反騰 現狀

- 94년 상반기 경기 지표들은 反騰 效果가 내포되어 있음.
- 94년 상반기 경기 지표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한 것은, 93년 상반기가 사상 최악의 경기 수축기에서의 景氣 最低點인 것을 반영하고 있음.
 - 93년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4.4%로 81년 상반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 기록

(2) 特需 景氣

○ 최근의 국내 경기는 特需 성격을 띤.

- 엔高 효과와 의도적인 設備 投資의 수요 증대에 의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짐.
 - 엔高 효과에 의해 중화학 공업 수출과 대개도국 수출이 증가
 - 그동안 정치 사회 여건의 악화에 따른 투자 부진을 補填하고,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기업들의 意圖的 投資 擴大에 의해 설비투자 급증

(3) 內需 爲主의 成長

○ 최근의 경제 성장은 外需보다는 內需 특히 投資 部門이 주도하고 있음.

- 내수의 成長 寄與率은 93년 1/4분기의 38.1%에서 94년 1/4분기에는 97.4%로 증가하고, 외수의 성장 기여율은 119.8%에서 -32.4%로 떨어졌음.

(4) 兩極化 深化

○ 성장 내용의 兩極化로 인해 경기 회복감이 경제 전체로 확산되지 않음.

- 상반기 重化學 공업 생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3.5%, 輕工業은 2.3% 성장
 - 특히 상반기 농림어업 성장률은 -1.5%로 매우 부진
-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不渡率이 지속적으로 상승
 - 93년 3/4분기 부도율은 0.11%, 94년 7월 부도율은 0.15%를 기록

II. 景氣 論爭의 評價

1. 景氣 論爭 內容

- 경기 지표의 급상승과 경기 내용의 특성에 의해 景氣 論爭이 유발됨.
- 경기 지표 추이에 주목할 경우에 景氣 過熱이 우려되는 한편, 경기 내용에 초점을 맞춘 경우에는 현재 경기를 單純 擴張 局面으로 평가하게 됨.
- 景氣 過熱論은 잠재 성장률(정부 7% 내외 추정)을 초과하는 경제 성장률과 이에 따르는 물가 상승 압력을 우려함.
- 그러나 景氣 上昇勢가 부분적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경기 국면은 경기가 擴張 局面으로 진입하는 단계라는 의견임.

2. 評價

- 최근 경기는 過熱 狀態로까지 진전은 안되었지만, 過消費 조정·雇傭 構造의 脆弱과 같은 새로운 문제점이 부상하고 있음.

(1) 過去 景氣 過熱期와 比較

- 과거 경기 과열기인 90년 상황과 비교해 볼 때 현재의 경기 상태는 經濟 與件 및 經濟 實績 면에서 '過熱 景氣'는 아닌 것으로 평가됨.

1) 經濟 與件의 差異

- 90년의 경제 여건은 總需要 압력이 컸던 데 비해 최근의 경제 여건은 총수요 압력이 작을 뿐만 아니라 供給 能力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임.

- 90년의 景氣 過熱은 이전 3 년간의 사상 최고 好況 뒤 발생한 것이었음.
 - 86-88년 동안 10% 이상의 高率 경제 성장, 86-89년 동안 4년 연속 큰 규모의 경상 수지 흑자 지속
- 최근 경기는 史上 最長の 경기 침체 후 회복되는 양상을 띠고 있음.
 - 경기 순환상 수축 기간이 31 개월로 最長, 90-94년 동안 경상 수지 적자
 - 제조업의 생산능력지수 증가율은 88년의 15.4%에서 93년부터는 2%대로 하락

< 90년 경기 과열기 때와의 경제 상황 비교 >

	1990년	최근 경기
경제 여건	· 86-88년 3년 동안 10% 이상의 고율 경제 성장률 지속, 최고의 경기 호황 · 86-89년 4년 동안 국제수지 흑자 누적액 336.9억 달러	· 91-93년 3년 동안 최장의 경기 침체 지속 · 90-94년 5월까지 경상수지 적자 누적액 108.9억 달러
경제 실적	· 성장률 89년의 6.9%에서 9.6%로 2.7% 포인트 상승 · 성장률을 능가하는 민간소비 증가율 10.7% · 소비자 물가 89년의 5.0%에서 9.4%로 급등 · 생산자 물가 역시 89년의 1.2%에서 7.2%로 폭등 · 지가 상승률 20.6%	· 94년 성장률 연간 8% 내외 전망. 이는 93년에 비해 2.4% 포인트 상승 · 상반기 민간 소비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7.2% ·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93년과 비슷한 수준 · 자산 가격 하향 안정세 지속

2) 經濟 實績 比較

○ 경제 실적을 비교해 보아도 최근 경기는 過熱 樣相을 나타내지 않고 있음.

- 90년 당시는 성장률의 급증, 성장률을 초과하는 소비, 물가 양등, 地價 폭등 의 전형적인 경기 과열 양상을 띠.
- 최근 경기는 아직까지 90년과 같은 과열 양상으로까지는 進展되지 않았음.

(2) 새로운 問題點

- 경기 상승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過消費 조짐・雇傭 構造 취약 등은 향후 경기 흐름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큼.

1) 過消費 조짐

- 민간 소비 증가율이 93년말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, 내용면에서 過消費 樣相을 띠고 있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.
 - 大型 消費와 選擇 消費 증가 : 내구재와 외식비가 소비 증가를 주도
 - ・ 1/4분기 내구재 소비와 외식비 증가율은 각각 9.6%와 30.3%
 - 模倣 消費 풍조 확산 : 승용차 구입 등 대형 소비가 중저소득층으로 확산
 - 외상 소비 급증 : 신용 카드와 家計 貸出에 의한 소비 증가
 - ・ 1/4분기 현금 서비스 증가율 128.7%, 가계 대출 증가율 20.6%
 - 限界消費性向 上昇 : 94년 1/4분기 한계 소비 성향은 평균 소비 성향에 근접
 - ・ 한계 소비 성향이 93년 1/4분기 72.1%에서 94년 1/4분기에는 72.9%로 상승
 - ・ 평균 소비 성향은 93년 1/4분기 73.8%에서 94년 1/4분기에는 73.7%로 하락
 - 貯蓄率 下落 : 국내 총저축률은 91년의 36.1%에서 34.9%로 하락

2) 雇傭 構造의 脆弱

- 고용 구조의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어 '類似 人力難'을 발생시켜 임금 급등의 원인을 제공함.
 - 一時 就業者의 増加 : 주당 1-17 시간 취업자(하루 평균 최고 2.8 시간 근무)들의 취업 증가율이 가장 높아 총취업자 중 이들의 비중이 증가함.(93년 1/4분기의 1.3%에서 94년 1/4분기에는 1.7%로 증가)
 - ・ 취업자의 과대 계상에 의해 실업률 저하의 의미 퇴색

- 高學歷일수록 실업률이 높음.
 - 94년 1/4분기와 2.4분기의 대졸 실업률은 4.6%와 3.7%로 전체 실업률인 3.1%와 2.4%를 크게 상회
- 産業別 就業 構造의 不調和 : 서비스 부문의 취업 증가율이 가장 높음.
 - 94년 상반기 제조업과 농림어업 증가율은 각각 0.7%와 -4.1%인데 비해 서비스업 증가율은 6.9%

Ⅲ. 下半期 景氣 展望과 政策 課題

1. 景氣 展望

- 국내 경제의 國際 競爭力 상태와 海外 經濟 與件 變化, 景氣 趨勢를 고려할 때 3/4분기 이후 경기 상승세는 弱화될 것으로 전망됨.

(1) 下半期 經濟 與件

1) 國際 競爭力 弱화

- 90년 이후 국내 경제의 國際 競爭力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- 원貨 환율은 94년에 들어서 절상되고 있으며, 利率은 여전히 경쟁국보다 높고, 90년 이후 單位 勞動 費用 역시 경쟁국보다 높게 상승하였음.

< 국제 경쟁력 비교 >

	한 국	대 만	싱 가 폴	일 본
대미 달러 환율 변동(%)	-0.3	+0.7	-5.4	-13.1
이자율(%)	8.5	7.75	5.66	3.0
단위노동비용(%)	5.1	4.0	4.1	3.1
소비자 물가(%)	5.9	2.1	4.1	0.8

자료 : 한국은행

주 : 환율 변동은 93년말부터 94년 6월까지의 변동률, 이자율은 우대 금리 기준, 단위노동비용은 90년부터 93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, 소비자 물가는 6월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증가율(단, 일본은 5월말 기준)임.

2) 海外 經濟 與件 惡化

○ 국제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는 가운데 해외 경제 여건은 惡化되고 있음.

- 엔高 효과가 약화되고 있으며, 國際 原資材價와 國際 金利가 상승 기조를 띠.

< 해외 경제 여건 변화 >

	1993	1994			
		5	6	7	8.22.
WTI油(달러/배럴)	14.15	18.30	19.35	20.47	16.63
로이터 상품 지수	1681.7	1955.1	2038.8	2115.1	2067.1
엔/\$	111.88	104.35	98.95	100.15	97.85
리보 금리(3 개월)	3.38	4.63	4.88	4.88	5.0

자료 : 한국은행, 기말 기준임.

(2) 景氣 展望

○ 下半期 成長率은 상반기보다 1%p 정도 낮은 7%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94년 年間 成長率은 8.0% 내외가 될 전망이다.

- 특히 93년 하반기 경제 실적이 상반기보다 크게 好轉된 점을 감안할 때 94년 하반기 景氣 指標의 상승세는 전반적으로 약화 될 것임.

2. 政策 課題

- 하반기 정책 과제는 최근의 경기 상승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過消費 조짐과 취약한 고용 구조와 같은 문제점을 解消하고 國際 競爭力을 強化하는데 두어야 함.
- 이를 위해서는 첫째, 經濟 政策 運用의 方式을 景氣 指數 目標 관리 정책에서 탈피하여 경제 성장 내용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전환하여야 함.
 -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, 산업 구조 조정을 원활히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운용의 초점을 맞춤.
- 둘째, 경제의 개방화에 따라 통화 금융 정책의 효용도가 떨어지는 점을 감안한 通貨 政策의 전환이 필요함.
 - 통화 정책의 목표를 通貨量보다는 金利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임.
 - 또한 量的 通貨 規制보다는 市中 資金의 善循環을 위한 금융 구조의 개선과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함.
- 셋째, 財政 政策은 景氣 調節 機能을 더욱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.
 - 이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같은 國家 競爭力 強化를 위한 재정의 기능을 강화해야 함.
 - 경기 조정 정책은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政策 組合이 이루어져야 함.
- 넷째, 過消費 억제와 원활한 노동 수급을 위해 사회 분위기를 刷新해야 함.
 - 사회 내 投機 要素의 근절을 위해 法秩序가 확립되어야 하고, 製造業의 勤勞 與件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함.